

## 야곱과 팔죽 창25:19-34

오늘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이다.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이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실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중한 깨달음과 함께 그것이 언약이 되어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 바란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근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제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거기에 자신의 인생에 답이 들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힘이 나온다. 그래서 신자는 근본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 답과 힘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답과 힘에 대해 세상에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은 하나님 편이 아니다. 항상 사단 편이다. 단 한번도 세상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없다. 그래서 항상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용납해야 한다. 하나님은 저주를 받은 인간에게 언약을 주었다. 그 언약이 저주에 대한 답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만남의 길이 예배이고 기도이다. 또 말씀과 찬양과 헌금이 그 길이다.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아야 한다. 언약을 잡고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처소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영적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면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치유도 일어날 것이다. 오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 바란다. 영권이 살아나면 우리가 237, 힐링, 서밋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영적 예배가 되기 바란다.

### 1. 야곱과 팔죽

오늘 본문은 장자권을 두고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에 들어가는 귀중한 축복이다. 언약의 족보안에 들어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중요하고 근본되는 축복이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를 지키셨고 축복하셨다. 그리고 결국 구원해주는 것이다. 인간이 받을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이 장자권에 대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것을 장자권이라고 이야기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장자권인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내려가는 족보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야곱과 에서도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야곱은 늦게 태어났지만 이 장자권이 야곱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육신적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장자는 결국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이다. 그 사람이 장자의 신분이다. 그러나 장자권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먼저 태어나느냐 늦게 태어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이 장자권을 두고 둘이 원수가 되어 버렸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하는 장면이 나온다. 장자권 문제로 인해 굉장히 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야곱을 죽일거라고 말했다. 또 창세기 32장 6절 보면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의 이야기이다. 그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백명을 끌고 왔다.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분하다는 것이다.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그 이유는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있었다.

야곱의 경우에는 이미 장자권이 이미 자기에게 와 있음을 몰랐던 것 같다. 아니면 알긴 알았지만 어렴풋이 알아서 확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팔죽으로 장자권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리고 형에게 맹

세하라고 했던 것이다.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장자권은 먼저 태어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장자권은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는 것이다. 그러니 팔죽으로 사고 팔고 맹세하는 것은 전부 야곱의 확신 부족, 혹은 영적 무지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한다해서 효과가 있는것도 아니다. 그러니 장자권은 팔죽으로 사고 판다고 해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맹세한다고 이것이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이 장자권에 대해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 팔죽 아니라 금으로 사고 팔고 해도 안된다. 그러면 맹세를 하고 피를 흘리고 해도 절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곱과 리브가가 합작을 해서 이삭에게 가서 야곱이 안수를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털을 붙여서 안수를 받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이다. 장자권이 인간의 안수기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하찮은 것이 아니다. 야곱은 자기 장자권의 유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안수기도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는데 왜 안수를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야곱은 팔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자기 형에게 맹세를 시켰다. 또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몰래 안수를 받기도 했다. 전부 불필요한 것이다. 아무것도 안해도 괜찮다. 그리고 한다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 필요없는 짓 때문에 에서와 원수가 된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고향 떠나고, 야곱은 좀 약한 사람이라 고향 떠나는 것을 싫어했다. 그러나 형이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괜한 일을 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영적 무지, 종교성 때문에 온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그 때에도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축복했다. 결국 지켜주시고 약속한대로 다 지켰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할수 없다. 야곱의 행위는 실수였다. 야곱은 고향에 있었어도 더 좋은 방법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을 것이다. 괜히 자기 생각으로 쓸데없는 일을 해서 고생한 것이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가만히 있었으면 된다. 언약잡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정리했을 것이다. 그러면 에서가 야곱에게 원수같은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야곱에게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

내게 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고 약속의 피는 사단의 머리를 깨드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이므로 그거 잡고 기다리면 된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다. 이 야곱이 이것을 못한 것이다. 종교는 사단의 역사이므로 종교적인 방식은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한다.

그런데 이 야곱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 리브가이다. 그는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해 직접 들은 사람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전달했어야 한다. 야곱과 에서는 리브가가 어릴 때부터 계속 이야기 했어야 한다. 특히 에서에게는 장자권이 야곱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정했음을 계속 이야기 했어야 한다. 그래서 에서가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평안하게 그 장자권을 포기할 수 있게 했어야 한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너는 둘째지만 하나님이 장자권을 너에게 주었으므로 감사해야하고 겸손해야 함을 말했어야 한다. 그리고 형에게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어야 한다. 이런 감사, 겸손을 표할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형하고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다.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 나이들고 나면 어른 말도 잘 안 받아 들인다. 그런데 어릴 때는 다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말해야 한다. 두 번째는 될 때까지 계속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사명인 것이다. 남편 이삭에게도 계속 처음부터 둘째에게 장자권을 주었음을 말했어야 한다. 만일 이삭이 안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일때까지 계속 이야기 했어야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먼저 받은 자의 사명,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 일을 잘 못했다. 아마 자신도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의 방식, 자신의 종교성들에 걸렸을 수도 있다. 종교에 걸리면 자연스럽게 인본주의가 된다. 여기서 빠져 나올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가족에게 다 이야기 해야 되는데 안하고

야곱하고 인본주의 쓴 것이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리브가였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여자가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다. 자기도 확신이 부족했고 종교적이었던 것이다. 아마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는데, 그것으로 끝인데 이삭이 만일 에서에게 안수하면 장자권이 에서에게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걱정을 했을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종교적이고 틀린 것이다. 말씀과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몰래 안수받게 하면서 에서가 완전히 화가 난 것이다. 왜 그래야 하는가? 떳떳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하고 생명걸고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도 에서가 장자라는 것이 속에서 계속 일어났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 해도 잊어버리거나 확실치 않거나 그래도 장자권이 에서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모자란 것이다. 이것은 야곱이나 리브가나 똑같다.

야곱이 이 장자권이 자기에게 와 있다는 것을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리브가가 분명 야곱에게는 말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리브가가 확신도 부족하고 겁이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한 것이다.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숨기다가 사단에게 당한 것이다. 그것을 용기내어 말을 했어야 한다. 그러면 말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했을 것이다. 두려워 말을 못한 것이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내어 말 해야 한다. 그래야 사단이 무너진다. 두 사람이 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아니면 그들의 종교성 때문에 언약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약을 잘 몰랐다고 할 것이다.

예전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언약을 잘 몰라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옆에서 새든지 중간에 해맨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언약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냐? 정말 사단이 무너지나, 사실인가 정리해야 한다. 정리가 안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될 때까지 해야 한다. 나도 정리되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해야 한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하면 사단에게 계속 당하게 된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그러면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이걸 이기려면 영적 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영적 힘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선을 가지고 원칙적 부작용을 차단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란다. 정말 정리하고 그 선에서 물러서면 안된다. 무너질 것 같으면 기도해서 힘을 구해야 한다. 물러서지 않도록. 그런데 이것을 안하면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미 모든 것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리브가처럼 산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나? 안 변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저주에게 해방, 안 바뀌면 그대로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장자권 확인하기 바란다. 그 언약 잡고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매일 고백해야 한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시간표를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 2. 누림과 증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누릴수 있는가가 포인트이다. 언약잡고 고백하고 확인해야 한다. 첫째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언약이다. 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다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제목이다. 그 다음은 이 언약을 누림으로 증거를 보는 것이다. 믿는 것은 우리가 다 믿는다. 중요한 것은 확신에 도달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증거가 없어도 평생 확신에 도달해서 누리며 살수 있다. 그러나 대개 응답을 통해 더 확실하게 믿게 된다. 언약은 괜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첫째로 언약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답이다.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 한번 믿고 끝내고 자기 삶은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인생을 살지 않으니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리브가는 받은 그 말씀이 두 아들 사이에 답

인 것으로 알아야 한다.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형제끼리 싸우게 된 것이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서 야곱없이 사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엄마는 좋아하는 자식하고 살면 힘 나는 것이다. 그런데 저 멀리 보내게 된 것이다. 그 당시에는 차도 없기 때문에 편지도 못 보내고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아들 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안 좋았다. 그런데 이 언약은 답일 뿐 아니라 믿으면 역사 일어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믿고 목상하면 역사 일어난다. 깊이 누리면 깊은 증거 나타난다.

이런 영적인 현상은 렘넬트 7명에게 다 있었다. 나름대로 영적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다 있었다. 자기가 누릴 영적 시간이 다 있었다. 다니엘은 정시기도이다. 하루 세 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다. 아브라함 하면 대표적인 단어가 단이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단 쌓는 일은 그치지 않았다. 다윗하면 찬양과 시다. 당연히 그때 깊은 기도가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무시로 성령안에서 찬양하였다. 이삭도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도 밖에 나가서 해질 때에 목상하고 기도했다. 성경에 기록대로 하면 이삭이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모리아 산에 자기 대신 죽은 솟양이다. 승리한 모든 인물들에게는 이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이다.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정복해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우리도 이 영적 서밋을 위한 구분된 시간이 누구든지 있어야 한다.

세상은 영적문제가 많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런 영적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루 중에 최고 중요하다. 이 시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다 이래야 한다. 어릴 때부터 있어야 한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은 것이다. 엄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항상 말하고 계속 될 때까지 말해야 한다. 리브가는 이 사명을 자기 스스로의 신앙 때문에 놓쳤다. 그러면 안된다. 항상 아이를 육신적으로만 사랑하고 잘 키우려하지 말아라. 그건 바보같은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다. 차라리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예전에 야곱을 보고 선한 욕심이라고 말했다.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이다.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좋은 열심이라고 했지만 틀렸다. 언약을 넘어서 잘못된 열심이었다. 좋은 열심이라면 잘 되었어야 했다. 야곱은 승리했지만 거부가 되었지만 열심 때문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였다.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 보면 이것을 많이 이야기 했다.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된다. 중요하다. 그러나 에서가 이것을 쉽게 생각했기에 못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래 장자권은 에서와 관계 없던 것이었다. 에서가 아무리 노력해도 장자권을 못 받는다. 이미 그 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쉽게 생각한 것이다. 지난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장사해도 안되겠지만 장사할 생각도 없었다. 그래서 땅에 묻어 놓은 것이다. 에서는 괜히 화를 내는 것이다. 자기것도 아니었다. 하나님 입장에서 에서것이 아닌데 그러고 있는 것이다. 리브가가 그걸 전달 안한 것이다.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았다는 것이다. 사실 그 언약잡고 기다리면 그것이 최고였을 것이다. 그러면 리브가도 한나나 기생 라합같이 되었을 것이다. 에스더같이 되었을 것이다. 확신이 없고 언약이 뭔지 모르니 종교, 인본주의 되어 버린 것이다. 가만히 언약잡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시스템이었다.

언약을 고백한 사람은 누림이 일어난다. 누림은 처음부터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확인하고 계속 고백하는 것이다. 안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고백을 써보는 것이다. 이것을 지속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깊어지는 것이다. 치유 일어나고 귀신도 나간다. 그래서 자꾸 점점 더 깊은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 24에 도달할 때까지 이 시스템을 계속해야 한다. 어느날 하나님이 24 주실 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되신 그리스도 확인하기 바란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237, 치유, 서밋, 24시 기도되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